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 (서면질문)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백상신/ 예산팀장 이덕수/ 주무관 행정7급 백진기】

연락처(☎) : 2600-6059

### 김기홍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199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됨. 설립 당시에는 강서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공단의 경영수입을 증대, 구 재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나, 설립 이후 현재 까지 경영수익은 고사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마곡 레포츠센터, 공항동수영장 등의 운영적자는 35억을 넘어서고 있고, 설립부터 2012년 말까지 총110여 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추정됨.

그동안 구의회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경고와 촉구를 지속해 온 바 있으며, 공단에서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2010년도에 사업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용역을 시행한바 있음. 그러나 적자폭은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경영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집행부와 공단이 실질적인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스스로 뼈를 깎는 의지가 부족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음.

사회복지비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여 구 재정은 이제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단의 경영 개선은 이제 권고, 노력의 한계를 넘어 존폐를 고려하여야 할 상태라 아니 할 수 없음. 집행부에서는 우선 공단의 사업 중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고 점차 확대하여 공단의 군살을 빼는데 치중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제출하기 바람.

□ 답변내용 ----- (기획예산과)

-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기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은 1996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매년 흑자경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단의 업무특성에 기인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구와 비슷한 여건인 서울시 24개 타 공단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경영수지 적자가 가장 큰 사업은 체육사업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 비용증가와 이용회원 감소, 인건비 상승 등이 주된 원인으로 적자폭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였고, 경영개선을 위한 조언과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2010년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을 통한 공단 조직 1본부 5개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연구용역 결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한계사업 정리·재위탁, 마케팅 강화, 신규사업 발굴 등이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조직 및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에 우선적으로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2011년에는 마케팅, 고객관리 등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성격에 따른 팀제를 운영하고자 8개팀으로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 또한, 2012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업수지비율 개선과 대행사업비 절감대책 등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사업수입은 1,520,998천원 상승하였고, 경영수지 비율이 11.52%가 향상되기도 하였으며, 2012년도에 경영평가결과 상위등급인 “나” 등급 평가와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2013년에도 불필요한 인력감축과 재배치로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체육 1·2팀을 체육사업팀으로 시설팀을 경영지원팀으로 통합하는 등 공단의 정원을 축소하고 조정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 최근 개관한 곰달래 문화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인력 배치도 최소한의 법정 전문인력을 제외한 인력을 현재 공단인력으로 재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경영수지 적자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구는 경영수지 적자, 사업의 비효율성 등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장·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대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경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청소, 셔틀버스, 전기안전, 회계프로그램 등 단순·반복업무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그 외 업무도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올림픽, 공항동 체육센터 등 적자 사업장에 대한 중장기 시설개선 및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수지 적자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사업장 유지비 재원을 확보해 가는 한편 신규 수입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여 수익을 제고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행정지원국장:최병주 / 문화체육과장:김진선 / 문화예술팀장:오광수 / 주무관:행정 7급 김진희】  
문화시설팀장:권용갑 / 주무관:행정 8급 박 현】  
문화시설팀장:권용갑 / 주무관:행정 9급 강조연】

연락처(☎) : 2600-6071

### 김기홍의원 구정질문 내용

2. 강서문화원의 문화센터와 문화원의 위탁시설인 허준박물관, 겸재기념관이 최근 3년간 예산과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 43억 8,141만원, 수입 9억 5,148만원으로 34억 2,693의 지출이 발생 매년 1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강서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센터 10억 7,574만원, 허준박물관 12억 4,088만원, 겸재정선기념관 11억 1,029만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 강서문화원은 특수법인이나, 이사회를 통한 자체수입이 빈약한 실정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 문화원 건물이전을 계획하고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이전 소요예산이 71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구의 긴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전계획은 재고되어야 함,
- 강서문화원의 문화센터는 각 자치회관에서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폐지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함.
-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의 운영은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상 중,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 바람.

□ 답변내용 ----- (문화체육과)

- 강서구는 문화향유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많으며 강서구의 미래 주역이 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가 필요합니다.
- 문화시설의 특성상 영리 추구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현재 허준박물관과 겸재

정선기념관은 운영사업의 내실화, 다양화를 통해 주민의 문화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기획력 있는 전시 개최 등으로 관람객 저변을 확대하고 폭넓은 계층의 수강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박물관과 기념관 관련 유물·자료 확보 및 문화상품 등 다른 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더욱 질 높은 문화서비스로 강서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는 수강료 개선, 시설대관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속적인 문화시설간 교차 홍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